

# 觀光地の選好와 認知에 관한 研究

—國立公園을 中心으로—

尹 吉 鎮\*

## 《目 次》

1. 序 論	3. 觀光地에 대한 認知構造
(1) 研究의 目的과 方法	4. 觀光地에 대한 選好와 認知의 關係
(2) 觀光屬性의 證明	5. 觀光地에 대한 選好構造
2. 理論의 背景	6. 結 論

## 1. 序 論

### (1) 研究의 目的과 方法

人間의 行動은 各種의 필요와 목표하에 多樣한 情報를 받아들이며 그것을 기초로 자극을 받아 動機가 형성되고 충동을 받게되어 意思決定(decision-making)을 하게 되며, 實際의인 人間 行動을 하게 된다. 이러한 人間行動의 과정을 空間的인 과정에서 보면 다양한 情報의 흐름 중에서 人間은 環境에 대한 認知(environment perception)를 하며 各各의 腦裡에 멘탈맵(mental map)을 그리게 된다. 이 멘탈맵을 기초로 選好가 정해지며 意思決定이 되어 人間의 空間의 行動(human spatial behavior)이 행하여지게 된다.<sup>1)</sup>

본 研究에서는 觀光地 開發計劃의 기초자료로 觀光地에 대한 認知와 選好의 構造를 究明하고자 한다.

觀光에 대한 地理學的 연구에는 觀光地의 景觀構成에 관한 研究, 觀光地의 立地論의 研究, 開發意圖에서 觀光地의 形成過程을 分析한 研究 觀光地計劃과 觀光環境保存 등을 主題로 한 觀光資源과 觀光施設 등의 觀光地를 대상으로 하는 研究와 그것들을 利用하는 觀光客을 중심으로 하는 研究로서, 觀光客의 觀光行態面을 다룬 研究와 觀光客의 認知와 選好面을 다룬 研究 등이 있다. 특히 觀光客(혹은 餘暇活動者)의 認知面을 다룬 研究로서 景致에 대한 認知와 景觀特性의 評價에 관한 研究로 Lowenthal과 Prince(1965)<sup>2)</sup>, Fines(1968)<sup>3)</sup>, Linton(1968)<sup>4)</sup>, Shafer(1969b)<sup>5)</sup>, Appleton(1975a)<sup>6)</sup>, Shuttleworth(1980)<sup>7)</sup> 등의 研究가 있으며, 未開發된 自然地

\* 建國大學校 理科大學 地理學科 講師

- 1) Clark, W.A.V., 1972, "Behavior and the constraints of spatial structure", *New Zealand geographer*, Vol. 28, pp. 171~180.
- 2) Lowenthal, D. and Prince, H., 1965, "English landscape tastes," *Geographical Review*, Vol. 55, pp. 186~222.
- 3) Fines, K.D., 1968, "Landscape evaluation: a research project in East Sussex", *Regional Studies*, Vol. 20, pp. 41~45.
- 4) Linton, D., 1968, "The assessment of scenery as a natural resource," *Scottish Geographical Magazine*, Vol. 84, pp. 219~238.
- 5) Shafer, E.L., 1969b, "Perception of natural environments,"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1, pp. 71~82.

域에 대한 認知를 研究한 Lapage (1963)<sup>8)</sup>, Lucas (1964)<sup>9)</sup>, Shafer 와 Mietz (1969)<sup>10)</sup>, Peterson (1974)<sup>11)</sup>, Scott (1974)<sup>12)</sup> 등의 研究, 레저와 餘暇活動의 選好類形을 論한 Neulinger 와 Breit (1969)<sup>13)</sup>, Bishop (1970)<sup>14)</sup>, Neulinger 와 Breit(1971)<sup>15)</sup>, Romsa(1973)<sup>16)</sup>, Ritchie (1925)<sup>17)</sup>, Witt(1971)<sup>18)</sup> 등의 研究가 있다.

觀光地에 대한 觀光行爲者들의 選好와 認知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論文에서는 10개의 觀光地를 選定하였다. 10개의 觀光地는 雪岳山, 五臺山, 慶州, 閑麗水道, 俗離山, 鷄龍山, 內藏山, 德裕山, 月岳山, 漢拏山이며 이들 지역을 選定한 것은 國立公園이라는 공통성을 가지는 점과 우리나라에 있는 18개의 全 國立公園에 대한 觀光客들의 選好度를 사전에 서울시內에 있는 觀光會社의 從事者들을 대상으로 한 調査를 綜合·整理한 結果에 의해서다.

본 研究의 調査對象地域은 서울시로 한정하였으며, 20세부터 60세까지의 俸給生活者를 대상으로 하여 非確率標本調査를 하였다. 調査期間은 1988年 1月 20日부터 1月 30日까지 10日間이었다. 總 900명의 對象者에게 設問紙를 配

표 1. 샘플의 人口學的 特性

內 容		
性 別	男	72.0%
	女	28.0%
結 婚 關 係	既 婚	63.0%
	未 婚	37.0%
平 均 年 齡		36.8세
平 均 學 歷		14.8년
平 均 月 收 入		47.05만원
職 業	專 門 職	14.5%
	事 務 · 管 理 職	43.6%
	販 賣 職	9.1%
	運 輸 · 技 術 職	15.7%
	教 職	5.7%
	其 他	11.4%

부하였으나, 그 중 全體의 52.1%인 532명의 應答者들의 設問紙단을 研究資料로 이용하였다.

標本의 人口學的 特性은 표 1과 같다.

- 6) Appleton, I., 1975b, "Landscape evaluation: the theoretical Vacuum,"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 66, pp.120~133.
- 7) Shuttleworth, S., 1980, "The Use of Photographs as an environment presentation medium in landscape studies," *Journal of Environment Management*, Vol. 11, pp.61~76.
- 8) Lapage, W.F., 1963, "Some Sociological aspects of forest recreation," *Journal of Forestry*, Vol. 61, pp.32~36.
- 9) Lucas, R.C., 1964, "Wilderness perception and Use: The example of the Boundary waters Canoe Area," *Natural Resources Journal*, Vol. 3, pp.394~411.
- 10) Shafer, E.L. and Mietz, J., 1969, Aesthetic and emotional experiences rate high with Northeast wilderness hikers,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1, pp.187~197.
- 11) Peterson, G.L., 1974, "Evaluating the quality of the wilderness environment,"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6, pp.169~193.
- 12) Scott, N.R., 1974, "Toward a Psychology of wilderness experience," *Natural Resources Journal*, Vol. 14, pp.230~237.
- 13) Neulinger, J. and Breit, M., 1969, "Attitude dimensions of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3, pp.255~261.
- 14) Bishop, D.W., 1970, "Stability of the factor structure of Leisure behavior: Analysis of four commun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2, pp.160~170.
- 15) Neulinger, J. and Breit, M., 1970, "Attitude dimensions of leisure: a replication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3, pp.108~115.
- 16) Romsa, G.H., 1973, "A method of deriving outdoor recreational activity packag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5, pp.34~46.
- 17) Ritchie, J.R.B., 1975, "On the derivation of Leisure activity types-a perceptual mapping approa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7, pp.128~140.
- 18) Witt, P.A., 1971, "Factor structure of Leisure behavior for high school age youth in three communiti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3, pp.213~219.

한편, 應答者들이 지난 10년 동안 10개의 國立公園을 방문한 횟수의 분포를 보면, 應答자들의 54.8%가 10개의 지역 중 5곳 이상의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8곳 이상을 방문한 應答者는 16.7%였다.

이상의 특성을 갖는 應答자들의 國立公園에 대한 認知, 특히 類似性的의 尺度를 통한 認知를 多次元尺度法을 이용하여 究明하며, 또 國立公園에 대한 選好와 認知간의 關係를 Thurstone의 比較判斷의 法則(특히 Case V)<sup>19)</sup>, Fishbein Type Choice model<sup>20)</sup>을 이용하여 알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應答자들의 10개의 국립公園에 대한 選好를 多次元空間上에 표현하기 위하여 多次元尺度分析을 하여 보았다.

## (2) 觀光屬性的의 證明

多屬性研究에서 屬性的의 證明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國立公園들이 보유하고 있는 觀光의 屬性들은 세 방법으로 誘導되었다.

① 觀光會社의 從業者들(觀光會社의 營業職員, 觀光버스의 운전기사와 안내원 등)에게 직접적으로 質問을 하여 觀光客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國立公園의 觀光的 屬性들을 조사하였으며,

② 各 國立公園에 대한 觀光案内書와 觀光文獻을 통해서,

③ Kelly's repertory grid technique<sup>21)</sup>을 이용하여 이들 屬性들을 유도하였다.

이상의 方法으로 유도한 10개의 觀光的 屬性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에 이용된 觀光지의 觀光 속성

1. 역사적·문화적 景觀  
(고적, 박물관, 전통문화 행사 등)
2. 景觀의 아름다움(주변경치가 아름답다)
3. 觀光지의 청결, 주민들의 친절함
4. 휴식공간·휴식시설
5. 서비스와 쇼핑시설
6. 오락·유희·스포츠시설
7. 숙박시설
8. 교통의 편리
9. 觀光지의 근접도
10. 觀光지의 혼잡도

## 2. 理論的 背景

本 論文에서는 國立公園에 대한 認知·選好와 認知 간의 關係를 究明하기 위하여 多次元尺度構成法(Multidimensional Scaling)과 Fishbein의 態度測定모델(Fishbein's Choice model)<sup>22)</sup>을 이용하였다.

多次元尺度構成法(Multidimensional Scaling)은 心理學에서 개발된 尺度構成法으로 一次元尺度(Unidimensional Scaling)에 의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는 測定技法이다.

이 技法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Torgerson<sup>23)</sup>(1958)이며, Shepard<sup>24)</sup>와 Kruskal<sup>25)</sup> 등에 의해量的으로 質的으로 많은 發展이 이루어졌다. 地理學에서는 行動地理學의 하나의 方法論으로서, 環境認知(environmental perception)<sup>26)</sup>, 都市內

19) Thurstone, L.L., 1927, "A Law of Comparative judgement," *Psychological Review*, Vol. 34, pp. 273~286.  
 20) Wilkie, W.L., and E.A. Pessemier, 1973, "Issues in marketing's use of multi-attribute Attitude models," *Journal of Marketing*, Vol. 10, pp. 428~441.  
 21) Kelly, G.A., 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W.W. Norton.  
 22) Fishbein, M., 1967, "A Behavior theory Approach to the relations between beliefs about an object and the Attitude toward the object," in Martin Fishbein, ed., *Readings in Attitude Theory and Measurement*. New York: John Wiley, pp. 389~399, 477~492.  
 23) Torgerson, W.S., 1958, *Theory and Methods of Scaling*, John Wiley, New York, p. 460.  
 24) Shepard, R.N., 1962a,b, "The Analysis of Proximities: Multidimensional Scaling with an unknown distance function I, II," *Psychometrika*, Vol. 27, pp. 125~140, pp. 219~246.  
 25) Kruskal, J.B., 1964a, "Multidimensional Scaling by optimizing goodness of fit to a nonmetric hypothesis," *Psychometrika*, Vol. 29, pp. 1~27.  
 \_\_\_\_\_, 1964b,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a numerical method," *psychometrika*, Vol. 29, pp. 115~129.

의 空間認知<sup>27)</sup>, 地域間의 人口移動에 있어서 環境과 空間選好<sup>28)</sup>, 居住地의 選好<sup>29)</sup>, 都市의 空間構造<sup>30)</sup>, 時·空間으로의 擴散에 대한 分析<sup>31)</sup>, 認知와 쇼핑選擇<sup>32)</sup> 등이 이 技法을 이용하여 理論을 展開하였다.

多次元尺度法은 評價對象들간의 類似性, 選好關係 또는 기타 評價對象間에 內在하고 있는 關係를 多次元的으로 分解해 내는 技法이다. 多次元的 關係의 표시는 幾何學的인 空間에 표시되며, 그 空間을 形成하고 있는 軸(次元)이 評價基準이 된다. 또 各 軸上의 座標가 해당 對象의 評價水準이 되는 것이다.

多次元尺度分析에 사용되는 入力資料는 計量(metric) 形態와 非計量(non-metric) 形態로 大別되며 대체로 n개의 對象에 대한 n(n-1)/2개의 雙對比較(paired comparison method)를 통하여 얻게 된다. 이렇게 얻은 入力資料를 多次元 評價空間上에 評價對象들 간의 相對的인 距離를 가능한 한 精確히 유지토록 하여 布置시킴으로써 多次元 評價空間을 얻게 된다. 이때 入力資料에 의해서 얻어진 結果와 實際의 距離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評價時 作用하는 基準이 되는 次元(dimension)을 決定하거나 出力資料의 精

확도를 評價하기 위해서는 評價資料가 실제 入力資料를 얼마나 잘 再現하여 주는가를 나타내 주는 基準値가 필요하게 된다. 이 基準値가 스트레스(stress)이며 公式은 다음과 같다.

$$S = \sqrt{\frac{\sum_{i=1}^n \sum_{j=1}^n (d_{ij} - \hat{d}_{ij})^2}{\sum_{i=1}^n \sum_{j=1}^n d_{ij}^2}} \quad (1)$$

여기에서  $d_{ij}$ 는 자극  $i$ 에서  $j$ 까지의 실제거리,  $\hat{d}_{ij}$ 는 자극  $i$ 에서  $j$ 까지 프로그램에 의해 推定된 거리이다.

이 스트레스값이 줄어드는 方向으로 매번 返復(iteration)하면, 評價對象들의 座標가 변화하여 간다.<sup>33)</sup>

多次元尺度法을 遂行하기 위한 컴퓨터패키지로는 M-DSCAL, KYST, INDESCAL, ALSLAL, SMACOF, ADDSCAL 등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INDESCAL<sup>34)</sup>과 ALSLAL<sup>35)</sup>을 이용하여 國立公園에 대한 認知와 選好를 分析하였다.

觀光地로서 國立公園이 보유하고 있는 觀光的 屬性들에 대한 相對的 重要도와 10개의 國立公園의 相對的 選好度를 究明하기 위하여 一次元 尺度分析法인 Thurstone의 比較判斷의 법칙, 특히 Case V를 이용하였으며 이어 選好와 認知

- 26) Sonnenfeld, J., 1976,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Personality," In Golledge, R.G. and G. Rushton, eds, *Spatial choice and Spatial behavior*, ohio state univ. press, pp. 51~66.
- 27) Golledge, R.G., Rivizzigno, V.L., and A. Spector, 1976, "Learning about a city: Analysis by Multidimensional Scaling", In Golledge, R.G. and G. Rushton, eds. *Spatial choice and Spatial behavior*, ohio state univ. press, pp. 95~116.
- 28) Ewing, G.O., 1976, "Environmental and spatial preference of Interstate 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In Golledge, R.G., and G. Rushton, eds. *Spatial Choice and Spatial behavior*, ohio state univ. press, pp. 240~270.
- 29) Lueck, V.M., 1976, "Cognitive and effective Components of Residential Preference for cities: a Pilot Study", In Golledge, R.G. and G. Rushton, eds. *Spatial Choice and Spatial behavior*, ohio state univ. press, pp. 273~300.
- 30) Nijkansp, P., and H. Voogd, 1979, "The use of psychometric techniques on evaluation procedures: Methodology and application", *Papers of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42, pp. 119~138.
- 31) 杉浦秀夫, 1980, "多次元尺度法(MDS)による 空間分析とその擴散問題への應用", 地理學評論, Vol. 53, pp. 617~635.
- 32) Spencer, A.H., 1980, "Cognition and Shopping choice: a multidimensional Scaling approach",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12, pp. 1235~1251.
- 33) Kruskal, J.B., and M. Wish, 1978, *Multidimensional Scaling*, Sage univ. paper Ⅱ, Sage publications, pp. 1~30.
- 34) Carroll, J.D., and J.J. Chang, 1970, "Analysis of individual difference in Multidimensional Scaling via an N-way generalization of 'Eckart-Young' decomposition", *Psychometrika*, Vol. 35, pp. 283~319.
- 35) Tacane, Y., Young, F.W., and de Leeuw, 1977, "Nonmetric individual differences multidimensional Scaling: An Alternating least squares method with optimal Scaling features", *Psychometrika* Vol. 42, pp. 7~67.

간의 관계를 Fishbein의 態度測定모델을 이용하여 究明하였다.

Turstone의 V尺度모델은 雙對比較法(paired comparison method)과 같은 差異發生法에 의해 收集된 序列尺度를 一次元的인 等間尺度로 바꾸어 주는 모델로서, 인간이 특정 자극(stimulus)을 評價할 때는 그 자극의 屬性 등에 대하여 主觀적으로 어떤 수준의 속성을 가진다고 判斷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을 표현하는 여러 다른 屬性의 수준들과 비교하는 過程(discriminal process)에 의해서 評價한다는 假定下에 자극들의 雙對比較를 통하여 評價한 집단의 비율의 차이로 부터 等間尺度를 찾아내는 모델<sup>36)</sup>이다. 모델은 다음과 같다.

$$R_j - R_k = Z_{jk} \sqrt{\sigma_j^2 + \sigma_k^2 - 2\rho_{jk} \sigma_j \sigma_k} \quad (2)$$

여기에서  $R_j - R_k$ : 자극  $j$ 와  $k$ 의 직선거리

$Z_{jk}$ :  $i$ 가  $k$ 보다 선호되는 경우의 비율의 표준값

$\sigma_j^2 \cdot \sigma_k^2$ : 자극  $j \cdot k$  평가의 분산

$\rho_{jk}$ : 자극  $j \cdot k$ 의 특성수준들의 상관계수

또, Fishbein 모델은 개개인의 態度를 測定하는 모델로서 이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觀光地로서 國立公園이 갖고 있는 觀光屬性水準에 대한 評價와 그 屬性의 重要水準에 대한 評價가 필요하다. 모델은 다음과 같다.

$$R_j = \sum_{i=1}^n I_i A_{ij} \quad (3)$$

여기에서

$i$ : 觀光屬性

$j$ : 觀光地(여기에서는 國立公園)

$R_j$ : 觀光地  $j$ 의 응답자들에 의해 評價된 選好順位

$I_i$ : 응답자들에 의해 평가된  $i$  屬性의 重要度

$A_{ij}$ : 응답자가 평가한 觀光地  $j$ 가 가지고 있는 屬性  $i$ 의 保有程度

$n$ : 屬性의 數

### 3. 觀光地에 대한 認知

觀光地로서, 國立公園들이 保有하고 있는 중요한 觀光屬性들에 대한 認知도를 究明하기 위하여, 10개의 國立公園들에 대한 類似性的程度를 응답자들에게 評價하게 한 다음 그 結果를 多次元尺度法에 의해 分析을 하였다.

類似性的의 測定은 景觀面, 施設面, 接近度面 등 여러面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0개의 國立公園에 대한 45개의 雙對組別로 類似性에 대한 雙對比較를 7점 尺度(類似性이 높다고 判斷될수록 7점에, 낮다고 판단될수록 1점에 가깝게 評價한다)로 응답자들에게 評價하게 하여 얻은 資料를 多次元尺度法の 컴퓨터 패키지 중의 하나인 INDSCAL의 入力資料로 이용하여 INDSCAL 分析을 하였다.

그룹자극 공간은 여러 INDSCAL 次元들에 관한 각각의 자극組의 相對的인 위치를 보여 주게 된다.

10개의 국립공원들에 관한 類似性判斷結果인  $532 \times 10 \times 10$  lower half matrix를 INDSCAL model에 적용시켜 4, 3, 2次元의 解를 얻었다. 4, 3, 2次元들이 설명한 全變動量과 全應答者들의 評價값의 평균과 이들 次元과의 평균상관률 표 3에 整理하였다.

3次元과 4次元의 解들은 비교적 높게 次元들과 相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ruskal<sup>37)</sup>은 12자극 이하를 나타내는 데는 2次元의 解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分析에서는 2次元의 解를 선택하였다.

그림 1은 응답자들이 연구대상지역인 10개의

표 3. INDSCAL에 의한 多次元尺度의 결과

	Dimension		
	4	3	2
INDSCAL model에 의해 설명된 분산량 (%)	61.67	56.09	47.37
전 응답자들의 평균 상관계수	0.779	0.741	0.677

36) Thurstone, L.L., 1927, "A Law of Comparative judgement", *Psychological Review*, Vol. 34, pp. 273~286.

37) Kruskal, J.B., 1964, "Multidimensional Scaling by Optimizing Goodness to fit to a Nonmetric Hypothesis", *Psychometrika*, Vol. 29, pp. 1~27.

표 4. 두 INDSICAL 次元과 全 樣本에 걸친 屬性平均 값과의 相關關係

次元 1		次元 2	
-.6417	交通의 便利	-.7332	주변 景觀의 아름다움*
-.4751	서비스 쇼핑施設	-.5555	서비스·쇼핑施設
-.4631	오락·유희·스 포츠施設	.4284	交通의 便利
.4212	觀光地의 清潔 住民들의 態度	.3096	觀光地의 混雜度

\*  $\alpha=0.05$  이상에서 유의

는 정도의 相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屬性面에서 次元 1은 '交通과 施設'로 說明될 수 있다. 또, 次元 2와 屬性과의 相關關係를 보면 '주변 景觀의 아름다움'과 강한 相關關係를 보이며 그 外에 '서비스·쇼핑施設', '交通의 便利'와의 相關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次元을 '景觀'으로 解析하였다.

次元 1에 關係 보면 雪岳山, 五臺山, 月岳山, 俗離山, 鷄龍山, 德裕山, 內藏山이 類似群을 이루며, 次元 1의 右側에서 閑麗水道와 慶州가 次元 1에 關係 類似하게 認知되고 있다. 次元 2에 關係서는 雪岳山, 五臺山, 月岳山, 閑麗水道가 類似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俗離山, 鷄龍山, 德裕山, 內藏山, 慶州가 類似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 4. 觀光地에 대한 選好와 認知간의 關係

觀光地로서 10개의 國立公園에 대한 選好와 認知關係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Thurstone의 比較判斷의 법칙을 이용하여 10개의 國立公園에 대한 응답자들의 選好度에 따라 相對的인 選好 順位를 알아 보았다.

分析에 사용된 기본적인 Data는 10개의 國立公園의  $n(n-1)/2$  個組 즉 45개조의 雙對組 各各에 대하여 응답자들에게 選好에 대한 雙對比較를 하게 하였다.<sup>38)</sup> 그 結果 532×10×10의 選好度 matrix를 유도하였다. 이 matrix를 이용하여 比較判斷에 의한 尺度分析을 한 結果 1'의 國立公園에 대한 選好順位를 찾아냈다. 選'의 順位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最高의 選好도를 갖는 雪岳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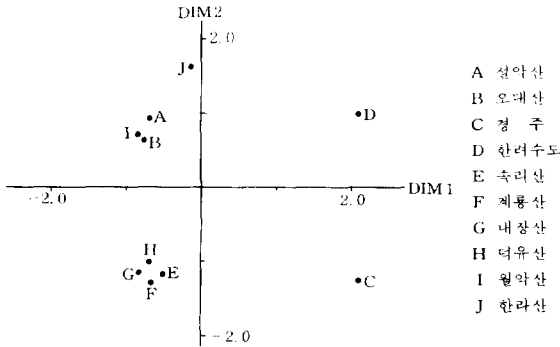


그림 1. INDSICAL에 의해 復元된 國立公園의 認知 空間

국립공원들에 대한 45개조의 雙對比較에서 7점尺度로 類似性的 정도를 評價하여 얻어진 Data에 대하여 INDSICAL 분석을 한 結果로 얻어진 2次元의 자극의 空間配列이다.

그림 1에서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은 次元 1(수평축)의 左側에 位置한 國立公園들은 모두 山岳景觀이며, 右側에 位置한 慶州와 閑麗水道는 非山岳景觀이라는 類似性을 갖고 있다.

또, 次元 1의 左側에 分布하고 있는 山岳景觀의 國立公園들의 群集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次元 2(수직축)의 윗쪽(+쪽)에 위치하고 있는 雪岳山, 月岳山, 五臺山の 群은 江原道에서 忠清北道에 이르는 北東部에 위치한 國立公園들이며 반면에 次元 2의 아래쪽(-쪽)에 위치하고 있는 俗離山, 德裕山, 鷄龍山, 內藏山은 忠清北道の 南部에서 忠清南道, 全羅北道에 이르는 西南部에 위치하고 있는 國立公園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客觀的인 판단 外에 보다 精밀한 次元 說明을 위하여, 10개의 國立公園별로 10개의 觀光屬性별 保有程度에 대한 전체 樣本에 걸친 평균값과 INDSICAL의 두 次元에 대한 국립공원들의 座標값을 單純 相關分析 하였다. 즉, 10×2 座標값 matrix와 10×10 國立公園의 各 屬性保有程度의 평균값 matrix에 대한 相關分析의 結果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次元 1과 높은 相關關係를 보이는 屬性은 없으나, '交通의 便利'가 비교적 높은 相關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비스·쇼핑 施設'과 '오락·유희·스포츠施設'이 어

38) 선호하는 곳에 '1', 선호하지 않는 곳에 '0'의 加重值를 주어 부분적인 序列尺度의 資料를 얻었다.

표 5. 國立公園의 相對的 選好度( $R_j$ )

국립공원	척도값	상대적 선호도	선호도 순위
1. 설악산	1.74	1.00	1
2. 오대산	0.32	0.19	6
3. 경주	0.18	0.11	7
4. 한려수도	0.91	0.61	3
5. 속리산	0.46	0.27	5
6. 계룡산	0.11	0.07	8
7. 내장산	0.69	0.41	4
8. 덕유산	0.00	0.00	10
9. 월악산	0.01	0.01	9
10. 한라산	1.27	0.76	2

표 6. 觀光屬性的 相對的 重要度( $I_i$ )

속성	중요도 평균	상대적 중요도	중요도 순위
역사적·문화적 경관	5.7	0.74	4
주변경관의 아름다움	6.4	1.00	1
관광지의 청결, 주민들의 태도	4.9	0.49	9
휴식시설, 휴식공간	5.3	0.62	6
서비스·쇼핑시설	3.6	0.06	10
오락·유희·스포츠시설	3.4	0.00	11
숙박시설	5.7	0.75	3
교통의 편리	6.2	0.92	2
관광지의 근접도	5.5	0.69	5
관광지의 혼잡도	5.1	0.56	8
소요비용	5.3	0.64	6

응답자들에게 압도적으로 選好되고 있으며, 漢拏山이 0.74, 閑麗水道가 0.54, 內藏山이 0.41로 각각 2, 3, 4위로 選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교적 낮은 選好도를 나타내는 것은 慶州, 鷄龍山, 月岳山이며 德裕山은 가장 選好되지 않는 公園이었다.

한편, 응답자들이 觀光地를 선택할 경우 各國立公園이 가지고 있는 觀光屬性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7점 尺度로 응답자들에게 評價하게 하였다. 그 결과로 얻은 Data로 역시 Thurstone의 Case V를 이용하여 屬性들의 相對的 重要도와 重要도順位를 찾아냈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에게 “주변景觀의 아름다움의 屬性이 관광지의 選擇에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번째로 중요한 要因은 ‘交通의 便利’였다. 또, 宿泊施設도 배놓을 수 없는 영향력 있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先進 여러 나라 國民들의 觀光地 選擇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관광속성인 ‘서비스·쇼핑시설’과 ‘오락·유희 스포츠施設’은 그 중요도가 아주 낮게 評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Thurstone의 比較判斷의 法則에 의해 誘導된 國立公園의 選好도順位와 觀光屬性들의 相對的 重要도는 Fishbein 모델(앞에 언급된 (3)式)의 要素들(components)로서  $R_j$ (國立公園의 選好順位)와  $I_i$ (觀光屬性들의 相對的 重要도)에 해당된다. 아직 구하지 못한 Fishbein 모델의  $A_{ij}$ 는, 응답자들에게 표 5에 언급된 觀光屬性

들을 10개의 국립공원들이 각각 어느 정도로 保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7점 尺度로 評價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國立公園別로, 屬性別로 合算·平均하였다. (표 7)

$$A_{ij} = \sum_{k=1}^{NK} X_{ijk} / NK \quad (6)$$

$X_{ijk}$ : k 번째 응답자의 j 번째 속성에 관한 i 지역의 보유정도에 대한 評價點數  
 NK: 응답자 수  
 i: 國立公園  
 j: 觀光屬性

各 國立公園의 觀光屬性別 보유정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표 7에서와 같이, 歷史的·文化的 景觀은 慶州가 월등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俗離山과 五臺山도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景觀美에서는 雪岳山이 가장 아름다운 景觀을 갖고 있는 公園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어 漢拏山, 閑麗水道, 內藏山도 역시 빼어난 景觀美를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認知되었다. 반면에 慶州는 가장 낮은 評價點數로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景觀을 가진 公園으로 評價되었다. 觀光地의 清潔, 住民들의 態度面에서는 漢拏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반적인 觀光地의 施設面에서는 역시 內國人뿐만 아니라 外國人 觀光客들의 訪問이 많은 慶州와 漢拏山이 단연 높게 評價되었으며 雪岳山도 諸般施設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公園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五臺山, 德裕山,

표 7. 國立公園別 平均 觀光屬性 保有度(A<sub>ij</sub>)

	설악산	오대산	경주	한려수도	속리산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월악산	한라산
1. 역사적·문화적 경관	4.0	5.2	6.6	4.8	5.3	4.6	5.1	4.6	4.0	4.4
2. 주변경관의 아름다움	6.6	5.4	4.8	6.2	5.5	5.1	6.0	5.2	5.1	6.3
3. 관광지의 청결, 주민들의 태도	4.3	3.9	4.4	4.6	4.5	4.9	4.8	4.3	4.3	5.3
4. 휴식시설, 휴식공간	5.2	3.6	5.1	4.2	4.5	4.1	4.4	4.1	3.8	5.2
5. 서비스·쇼핑시설	4.2	3.3	5.2	3.9	4.1	3.7	4.0	3.6	3.3	5.0
6. 오락·유희·스포츠시설	4.0	3.2	4.5	3.5	3.8	3.4	3.6	3.5	3.1	4.4
7. 숙박시설	5.4	3.9	5.5	4.4	4.7	4.3	4.6	4.3	3.9	5.4
8. 교통의 편리	5.2	4.2	5.5	3.9	5.0	4.7	4.7	4.3	4.0	4.4
9. 관광지의 근접도	4.4	4.0	4.1	3.3	4.8	4.7	4.1	3.9	4.2	3.0
10. 관광지의 혼잡도	3.6	5.1	3.8	4.2	4.3	4.3	3.9	4.2	4.6	4.1

月岳山 등은 施設面에서 낮게 評價되어 이들 公園들의 施設補強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交通關係에서는 慶州, 俗離山, 雪岳山이 높은 點數를 받았으며, 觀光地의 混雜度 面에서는 五臺山이 가장 混雜하지 않은 公園으로 評價되었다. 그러나 雪岳山과 慶州, 內藏山은 混雜도가 높은 것으로 評價되었다.

표 7에 정리한 結果와 觀光屬性들의 相對的 重要度(I<sub>i</sub>)에 대한  $\sum_{i=1}^n I_i \cdot A_{ij}$ 의 값을 구한 다음 國立公園의 認知도의 順位를 정하였다(표 8).

Fishbein 모델은 하나의 對象에 대한 개개인의 態度는 그 對象이 갖고 있다고 認知한 屬性들의 保有程度, 그리고 개개인들의 保有程度, 그리고 개개인들이 評價한 이들 屬性들의 重要도와 函數關係에 있음을 나타내는 모델이다. 즉, 본 논문의 경우 觀光目的地로서 國立公園을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評價한 屬性들의 保有程度가 높은 公園일수록 더 빈번하게 선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10개의 국립공원의 認知와 選好間의 關係를 알아보기 위해서 國立公園들의 認知順位( $\sum_{i=1}^n I_i \cdot A_{ij}$ 에 의한 順位)와 選好順位간에 스피어만(Spearman)의 順位相關關係를 알아 보았다. 그 結果는 표 8과 같다. 順位相關關係數는 0.54로, 국립공원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選好와 認知간에는 직접적인 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응답자들이 認知水準이 높다고 평가한 慶州(認知水準 1位)는 '역사적·문화적 경관'·전반적인 施設·交通關係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표 8. 各 國立公園別 認知點數, 認知順位, 選好順位

國立公園	認知點數	認知順位	選好順位
설악산	247.5	3	1
오대산	220.7	9	6
경주	218.0	1	7
한려수도	226.6	7	3
속리산	246.0	4	5
계룡산	239.1	6	8
내장산	238.7	5	4
덕유산	220.5	8	10
월악산	212.6	10	9
한라산	247.6	2	2
Spearman의 順位相關關係數 有意度		0.54 n.s*	

\* n.s는 有意하지 않음을 가리킴.

얻었으나 景觀面(自然景觀)에서 낮게 평가되어 選好順位는 10개의 국립공원 중 7위로 選好도가 낮은 편이다. 반면에 認知順位가 7位인 閑麗水道와 9位인 五臺山의 경우 選好順位는 각각 3위와 6위로 認知順位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國立公園의 認知順位와 選好順位간의 差는 비교적 적어 Fishbein 모델에 의한 結果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0개의 國立公園들의 選好順位가 10개의 觀光屬性들에 의해 얼마나 說明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選好順位를 從屬變數로, 또 (6)式에 의해 산출된 國立公園別 觀光屬性들의 보유도의 평균값을 獨立變數로 하여 段階別回歸分析을 하였다. 단계별 퇴귀분석 結果 1段階에



서 '주변景觀의 아름다움'에 의해 77.57%가 選好順位를 설명하였으며, 2段階에서 '宿泊施設'에 의해 추가로 9.2%가 설명되었다. 또 3段階에서 '休息空間·休息施設'에 의해 추가로 4.8%가, 4段階에서 '交通의 便利'에 의해 추가로 6.7%가 설명되어, 이들 4변수들에 의해 96.2%가 說明되었다.

결국, 여러 觀光屬性들 중 '주변景觀의 아름다움'이 觀光지의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行事한다고 할 수 있다.

### 5. 觀光地の 選好空間

觀光目的地로서 10개의 國立公園에 대한 응답자들의 選好를 多次元空間上에 圖式化하기 위하여 多次元尺度分析을 하였다.

多次元尺度分析의 遂行을 위한 기본 Data는 10개의 國立公園의 選好를 45個組의 雙對組別 雙對比較를 통하여 얻은 부분적인 序列尺度資料 즉, non-metric data matrix이다.

選好에 대한 多次元分析에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ALSCAL이다.

본 分析에 사용한 人力 Data는 非對稱行列 (Asymmetrical matrix)이기 때문에 ALSCAL의 非對稱모델인 ASYMSCAL을 적용하였다.

ASMSCAL을 이용한 2次元 出力結果에서 24번의 반복과정(iteration process)을 거친 후 스트레스 값이 0.0009 (0.9%)로 거의 완벽하게 fitting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ASYMSCAL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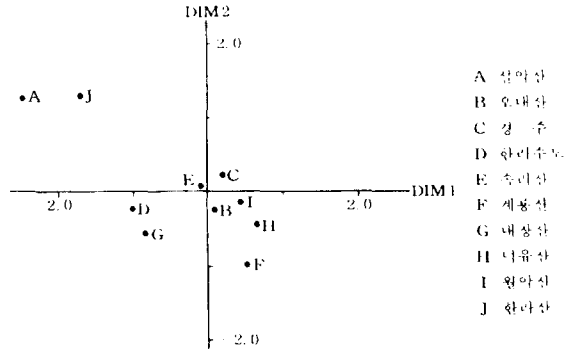


그림 2. ALSCAL에 의해 復元된 國立公園의 選好空間

의해 설명된 分散量은 98.0%였다.

이렇게 정답을 얻어가는 過程(history)을 거친 후 2次元에 의한 結果는 그림 2와 같다.

한편 多次元尺度의 遂行結果 유도된 次元의 內容을 알기 위하여 多次元尺度의 遂行結果 얻은 次元別 座標값과 각 국립공원들이 가지고 있는 觀光屬性의 保有程度에 대한 전 응답자들의 평가값을 평균한 값과의 相關分析을 하였다. 分析結果는 표 9와 같다.

각 次元들과 관광속성들과의 상관분석결과 次元 1은 '景觀美'와 負的으로 아주 높은 相關을 하고 있으며, 正的으로 歷史的·文化的 景觀과 비교적 높게 相關하고 있다. 따라서 次元 1은 '景觀'에 관련된 軸이라 할 수 있다.

次元 2는 '休息施設·休息空間'과 正的으로 높은 相關을 하고 있으며, '宿泊施設' '주변景觀의 아름다움'과도 正的으로 높은 相關關係에 있다.

표 9. ALSCAL 차원들과 국립공원별 관광속성에 대한 전 샘플의 평균 값과의 상관

DIMENSION 1 (경 관)		DIMENSION 2 (시 설)	
-0.6613	경관의 아름다움*	0.6605	휴식시설, 휴식공간*
0.5124	역사적·문화적 경관	0.6341	숙박시설*
0.4428	관광지의 혼잡도	0.6140	경관의 아름다움
0.4060	휴식시설, 휴식공간	0.5148	오락·유흥·스포츠시설
0.3589	숙박시설	0.4701	서비스·쇼핑시설
-0.1957	교통의 편리	0.4610	관광지의 혼잡도
0.1309	오락·유흥·스포츠시설	0.3835	관광지의 근접도
-0.0971	서비스·쇼핑시설	-0.3231	역사적·문화적 경관
-0.0819	관광지의 근접도	0.2308	교통의 편리
-0.0009	관광지의 청결, 주민태도	0.0557	관광지의 청결, 주민들의 태도

\*  $\alpha=0.05$ 에서 有意

또 ‘오락·유희·스포츠施設’, ‘서비스·쇼핑施設’ 등과 正的으로 비교적 높은 相關을 보이고 있으며 負的으로 ‘景光地의 混雜度’와도 相關을 하고 있다. 따라서 次元2는 觀光地의 전반적인 ‘施設’에 관련된 次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次元의 解析을 근거로 ALSICAL에 의해 復元된 10개의 國立公園에 대한 選好空間을 보면, 次元1 (Dimension 1)에서 즉 景觀의 軸의 ‘-’쪽의 가장 左側에 雪岳山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右側에 漢拏山이, 그리고 閑麗水道와 內藏山이 群을 이루면서 위치하고 있다. 이어 ‘+’쪽으로 옮기면서 俗離山, 五臺山, 慶州, 月岳山, 鷄龍山, 德裕山이 거의 群을 이루면서 위치하고 있다. 次元1은 ‘주변 景觀의 아름다움’의 屬性과 負的으로 높은 相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雪岳山이 景觀美의 最高에 위치를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어 漢拏山이 비교적 높은 次元1의 座標 값을 갖는 위치에 분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多次元選好空間上의 次元1 즉, 景觀과 관련된 次元에서 설악산, 한라산, 한려수도, 내장산이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경주, 속리산, 오대산, 덕유산, 계룡산, 월악산은 그 選好도가 낮은 위치에서 群集을 이루고 있다.

한편, 次元2 (Dimension 2)에서는 전반적으로 ‘施設’과의 상관이 높은 次元으로서 이들 相關이 正的인 관계라고 볼 때, 次元2의 ‘+’쪽의 上側에 위치한 漢拏山, 雪岳山이 역시 우월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어 施設面에서 비교적 높은 선호를 보이는 관광지는 慶州와 俗離山이다. 반면에 閑麗水道, 五臺山, 月岳山, 德裕山, 內藏山은 施設面에서 다소 그 選好도가 떨어져 있으며, 鷄龍山の 경우 次元2에서 가장 낮은 選好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次元2의 ‘-’側에 위치한 國立公園들은 施設面에서 ‘+’側의 國立公園들에 比하여 다소 낮아졌다 할 수 있다.

## 6. 結 論

觀光客들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방문하지 않은 지역들에 관한 충분한 지식들을 갖고 있지 않으나 마음속에 그들 나름대로 觀光地들에 대한 心

想(image)을 갖고 있다. 이들 심상들이 실제와 일치되든 안되든 觀光客들은 理想的인 觀光目的地(ideal destination area)의 心想과 비교하면서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觀光地를 선택한다. 이때 가고자하는 觀光地들에 대한 心想들의 比較는 여러 尺度를 따르게 된다. 즉, 觀光地의 가장 중요한 屬性들로 간주된 것들에 의해 여러 觀光目的地를 評價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여러 屬性들을 찾아내어 그들 屬性들에 대한 관광객들의 認知와 또 그들 속성들의 保有정도에 따른 관광지들의 認知評價를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며, 관광지들의 選好도와 認知도의 관계는 밀접한가를 심리적 기법인 多次元尺度法과 Fishbein의 態度測定 모델을 이용하여 究明하였다. 또 선호도에 따른 관광지들의 空間配列을 알아 보았다.

연구 대상 觀光地는 豫備調査結果 選好도가 높은 10개의 國立公園 즉, 雪岳山, 五臺山, 慶州, 閑麗水道, 俗離山, 鷄龍山, 內藏山, 德裕山, 月岳山, 漢拏山이다.

우선 10개의 國立公園들에 대한 類似性的의 測度の INDSCAL 分析結果, 次元1 (수평축)에 ‘-’側에는 山岳景觀이 ‘+’側에는 非山岳景觀이 布置되었으며 次元2 (수직축)으로 볼 때 ‘+’側의 左側에 群集하고 있는 雪岳山, 五臺山, 月岳山과 ‘-’側의 左側에 群集하여 있는 俗離山, 鷄龍山, 內藏山, 德裕山은 地域的인 공통성 관계로 서로 群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관광속성과의 관계로 各次元을 보면 그 說明力은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없다.

Thurston의 Case V에 의한 10개의 國立公園에 대한 選好관계를 보면 雪岳山, 漢拏山, 閑麗水道, 內藏山, 俗離山の 順으로 選好되고 있다. 반면에 月岳山과 德裕山の 選好水準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 國立公園에 대한 認知관계는 慶州의 認知水準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漢拏山, 雪岳山, 俗離山の 順으로 높게 評價되었다. 반면에 五臺山, 한려수도, 月岳山, 德裕山은 아주 낮게 評價되었다.

國立公園의 選好順位와 認知水準에 의한 順位와의 順位相關關係는 順位相關係數가 0.54로서

選好와 認知에는 어떤 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개의 國立公園에 대한 選好順位를 가장 잘 說明하여 줄 수 있는 觀光屬性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段階別 回歸分析을 하였다. 分析結果 '주변경관의 아름다움'에 의해 77.6%가 說明되었으며, '宿泊施設', '休息施設·休息空間', '交通의 便利'가 18.6%를 說明하여 모두 96.2%를

說明해 주고 있다. 따라서 景觀美에 의한 觀光地選好가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0 개의 國立公園의 選好에 대한 空間配列을 보기 위하여 多次元尺度 프로그램인 ALSCAL 分析을 하였다.

本 論文에서 이용한 모든 통계처리는 경제기획원의 IBM-370이 소장하고 있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였다.

# The Spatial Preference for and Perception of the Tourist Destinations

Kil-Jin Yoon\*

## Summary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was twofold: (1) to show the preference rankings of the tourist destinations, the perception ratings of the tourist destina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ferences for and perceptions of the tourist destinations, and (2) to demonstrate a methodology for doing this through use of the Fishbein-type attitude or choice model and 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 This is the first formal application of that model to travel research. Information on the individual preference for and perception of the ten national parks as tourist destination were collected from a group of 532 salaried living in Seoul through a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included the preference rankings of ten national parks as tourist destinations (Soraksan, Odaesan, Kyoungju, hallosudo, Songnisan, Kyeryongsan, Togyusan, Naejangsan, Woraksan, Hallasan), the perceptions of these regions as tourist destinations, the importance ratings of touristic attributes to respondents and demographic data.

Using a relatively new and powerful

multivariate statistical procedure called Multidimensional scaling, the respondents' similarity judgements and preference judgements of all paired comparisons of the ten national parks were analyzed. The computer program of Multidimensional scaling used INDSCAL, ALSCAL.

Correlation analysis of the INDSCAL dimensions and the mean attribute ratings of the regions across the entire sample were used to interpret the INDSCAL dimensions.

Using the Thurstone's law of comparative judgement, Case V in particular, the relative preference rankings of the ten national parks and relative importance ratings of the 10 attributes were derived.

The results of Case V analysis and ratings of ten tourism attributes possessed each of the ten regions was used as the components of the Fishbein type model.

Application of the data to the Fishbein type choice model indicated—through use of Spearman's rank order correlation—that the favorable perceptions of a tourist area not increase the probability of choice of (preference for) that area as a tourist destination.

---

\*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Kon kuk University.